



임 서 정

『학력사항』

-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사항』

- 현) 고용노동부 차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 고용노동부 대변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 고용정책실 직업능력정책관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장
- 대통령비서실 노사관계비서실 행정관
- 노동부 임금정책과 과장
- 1988년도 제32회 행정고시 사회직렬 합격

I. 시작하면서

비가 내린 청명한 여름날의 아침, 깨끗하게 씻겨진 가로수 나뭇잎 사이로 언뜻언뜻 내비친 햇살의 여유, 이것은 제가 가장 그리워하는 자연의 모습이자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입니다. 지난 3년, 考試라는 얽매임 속에 사랑하는 자연의 친구를 한 번도 따뜻하게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때론 시간적 이유로 때론 정신적 여유의 부족으로 자신의 사랑스런 벗과 따뜻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운 수험생 여러분들께 잠시 동안이나마 마음의 평온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씁니다.

II. 考試를 결심하기까지

저는 1965년 전라남도 승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이신 아버님의 잦은 전근 덕택으로 여러 곳을 이사한 끝에 국민학교 4학년 때 광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과 광주의 성적차는 상당했고, 저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 첫 시험에서 전교 250등 정도의 성적에 저 자신이 별다른 불만을 품지 않았던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100등 이내의 등수를 요구하셨고 저는 선생님, 부모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것을 수락하는 당돌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에서 47등을 기록했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체 1등까지 올라가는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어린 저에게 대단한 自信心을 불어 넣어 주었고 考試생활을 하는 과정까지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을 바꾼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평범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중학교 때의 기억이 저에게 自信心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학과에의 입학은 人生의 方向을 결정해 주는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선택한 학과지만 4년을 공부하는 동안 제 人生을 바칠만한 價値가 있음을 깨달았고, 결국 社會職을 선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활이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입학 후 서울에 홀로 올라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클에 가입하였고 서클생활은 학과공부를 뒷전에 두게 했습니다. 1학년 2학기때의 중간시험 거부와 기말고사에 대한 무성의, 이것은 결국 성적 경고를 가져왔고 그 여파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실망이라는 데서 지난 시간에 대한 反省과 새로운 方向의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우선 서클생활속에서 하고 있는 저의 행동들이 비록 옳기는 하나, 평생을 바칠 삶의 問題로는 다가오지 않음을 자위삼아 서클을 탈피하고 평범한 개인적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서클탈퇴는 많은 시간적 여유와 지루함을 동시에 주었고 저는 새로운 생활을 간절히 원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몇몇 친구들의 考試준비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직에 대한 깊은 사고 없이 단순히 지루함으로부터의 탈퇴가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의 규정 없이 시작된 考試공부는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정립되었으며 이의 정립만이 장기간의 슬럼프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책이었습니다.

### III. 제1차시험

2학년 2학기 들어 공부를 시작하여 했으나 도저히 3학년 초에 붙을 자신이 없어 아예 2차에서 어렵다는 경제학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원론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미시, 거시를 들었으므로 경제학 강의를 따라가는 것만으로 한 학기를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경제학은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강의와 이승훈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을 들었는데 특히 미시는 수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꽤나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2학년 겨울방학, 1차 과목 교과서와 몇권의 문제집, 그리고 아카데미 토플을 들고서 나주에 있는 큰어머니댁을 찾았습니다. 시골에서 큰어머니 혼자 사시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걱정거리인 영어를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에 Voc. 을 제외한 부분을 40일 분량으로 나누어 매일 할당된 양을 공부한 다음에야 다른 과목을 읽어 나갔습니다.

Voc.을 제외한 것은 영어를 시작할 때부터 지루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끝나면 헌법, 한국사, 민중, 사회학 순으로 매일 조금씩 읽어 나갔는데 이것은 민중, 헌법 등의 생소한 법률용어로부터 생기기 쉬운 無力感을 한국사, 사회학에서

다시 채워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시골생활은 재미가 없었고 이것은 가끔씩 광주에 올라가 친구와 노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주말마다 찾아오시는 부모님을 뵙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겨울방학이 끝나갈 즈음엔 전 과목을 거의 1회독 할 수 있었으며 어느 정도 성취된 기분으로 서울에 올라와 3학년 1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각 과목의 문제집을 구해서 읽고 각 교과서를 다시 1회독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회 1차에 응시하였을 때는 실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30회 1차 성적 발표 후 각 과목별 점수는 고시성공 여부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自信感을 갖게 해주었고 이 자신감은 가끔씩 찾아오는 슬럼프를 제외하곤 제32회 2차시험 발표때까지 줄곧 유지되었다.

3학년 2학기는 주로 2차과목에 맞추어 강의를 들었고 行政法, 行政學에 대해 어느 정도 맛을 들이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시간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학기중에 배웠던 행정법, 행정학을 다시 1회독 하는데 시간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1차과목, 주로 영어를 보는데 할애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전에 한번씩 보았던 것이어서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았고 다시 반복하는 때문인지 무척 지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1, 2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실력도 되지 못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술마시며 노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다. 아마 대학생할 중 가장 자주 술집에 드나들던 시절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보았던 교재를 보면 憲法은 김철수 헌법학개론을 교재로 하여 김철수, 권영성 문제집을 보았고, 民總은 광윤직 교과서와 이근식 문제집을 보았는데 권용우 문제집 중 요약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韓國史는 이기백 한국사신문을 교과서로 하여 김광남 문제집을 주로 보았는데 김광남 문제집은 다른 책에 비해 요약과 문제 모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학은 이홍탁 사회학원론을 기번서로 하여 방통대 문제집을 풀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의 빈 공간을 이용해 영어를 보았고 영어공부를 위해 특별히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에 교과서 보다는 문제집에 더 집중하였는데 문제집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은 문제집 요약부분에 써 놓아 다시 교과서로 들추는 횟수를 가능한 줄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험일은 다가왔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서면서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발표일이 다가오자 내심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1987년 여름은 무던히도 비가 많이 온 해였는데 친구로부터 승격을 알려주는 전화를 받고서 폭우를 뚫고 공중전화통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전화드린 기억이 납니다.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2차합격 발표때보다 더 많은 희열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시작한 考試라는 작업이 첫번째 결과라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해 제31회 2차는 시험장에 들어가 분위기만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왔으며 제32회를 기약하였습니다.

#### IV. 제2차시험

1차시험 합격 후 4학년 2학기는 상당히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32회 2차에 꼭 합격해야만 한다는 부담과 또 하나 군입대 연기를 위해서 大學院에 진학해야 한다는 부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다 놓치는 꼴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는 하지 않은 채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大學院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낙방 후 생긴 자신감의 상실이 2차시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낙방 후 생길 自我損傷을 방지하기 위해 낙방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을 한달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편도선 수술을 하기 위해 광주에 내려간 것입니다.

수술은 8일간의 입원을 필요로 했고, 이후 정상컨디션을 회복하기까지는 모두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에 올라온 후 도서관에서 대학원 준비를 위한 서적등을 가방채 도난당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오기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동안 大學院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最善을 다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의 촉박함은 결국 공부범위를 좁게 하는 방식을 택하게 했고 마지막에는 몇 문제를 예상하여 집중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많은 범위를 읽다간 1회독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필수과목인 行政學 두 문제는 모두 예상했던 문제였고 선택과목

인 社會學은 큰 문제는 예상한 범위에서 출제되었으나 작은 문제의 경우 다섯 문제 중 두 문제만 대충 쓰고 두 문제는 아예 손을 못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낙방했을 것을 확신하고 짐을 정리하여 광주로 내려가 발표일도 잊어 버린채 2차준비를 하고 있는데 大學院에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후 후배에게서 “형은 참으로 역세계 운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2차준비의 본격적인 시작은 大學院 입학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행정대학원의 강의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의 시각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경에 일어나 응암동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려 학교에 도착하면 커피 한잔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고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大學院 시험 이전의 잦은 술좌석은 이후에 만났던 여자친구의 덕택으로 빈도가 줄어들었고 시험이 가까워 오면서는 거의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외식과 식사시간 후의 여담으로 슬럼프를 없앴고 장시간 도서관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정신력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두 달 정도 남겨 놓을 때까지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특히 한 번도 본적이 없는 國民倫理의 경우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응암동으로부터의 교통시간과 여름날의 더위로부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신림동의 고시원에 들어간 후 근처에 있는 상원서적에서 고시에 관한 정보를 점차 얻어가면서 이제까지의 공부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50여일 밖에 남지 않는 시간

으로 공부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은 참으로 힘들었고 우선 시간적으로 촉박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식사를 하는 대신에 간단하게 우유로 대신하는 습관을 들였고 점심 저녁식사 후에는 반드시 서점에 가서 고시잡지에 나온 시사성논문과 예상문제를 복사하여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문제와 논문은 이제까지의 고시잡지에 기재된 목록을 참고하여 기출문제와 비교한 후 올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여 모든 과목에 대한 체계를 잡아 나갔고, 출제예상이 적은 문제보다는 큰 문제에 집중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험전날 보았던 상당부분이 문제로 출제되었고 大學院 합격에 이어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는 방법에 또 한 번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 과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우선 行政法은 이상규 행정법을 서브노트하여 반복하는 횟수를 줄였고 중요 부분은 예상문제 중심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經濟學은 거시는 정운찬, 미시는 박홍립 교수의 책을 기본서로 하여 보았고 국제경제 부분이 이론보다는 잡지의 예상문제로 현실 적용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셋째, 行政學은 박동서 한국행정론을 통해 체계를 잡고 김영식 문제집으로 보충했으며, 특히 잡지의 시사성 있는 논문을 통해 큰 문제에 대비했습니다. 넷째, 社會學은 김경동 현대사회학을 중심으로 서브노트 한 후 큰 문제는 잡지의 예상문제를 통해 보았고, 다섯째, 國民倫理는 우태희 문제집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날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첫날은 국민윤리와 행정법을 보았는데 국민윤리는 노장사상에 관한 문제가 나와 좀 당황하였으

나, 행정법은 모두 예상했던 문제가 나와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답안작성을 연습해 본다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그냥 시험장에 온 것이 역시 크게 작용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온 후의 기분은 무언가 허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날 경제학은 所得分配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 문제를 보는 순간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하였으나 침착하게 생각하여 미시부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行政府의 民主化와 脫官僚化에 관한 문제는 민주화에 관한 설명에 두 장 반을 할애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날 사회학은 Max Weber의 理念型과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념형보다 한국 사회에 중점을 두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심리는 심리학적 시각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사회학적 시각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상당한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社會政策을 보았는데 큰 문제 社會政策의 理論에 관한 문제는 제일 열심히 준비했던 문제였고, 작은 문제는 전달체계였다.

## V. 몇 가지 提言

이제 시험에 대한 당혹감의 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유난히도 많은 실수를 했던 저에게 후회하는 것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택과목에 모험을 걸지 마십시오. 선택과목에 따라서 상당한 점수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가능한 위험성이 작은 문제를 선택하십시오. 社會職의 경우는 社會心理보다 社會



問題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고시잡지를 이용하십시오. 때로 교과서만 가지고 마지막까지 열증하시는 분이 있으나 사람의 암기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시잡지를 통하여 사회전반의 흐름이 반영된 큰 문제에 대비하십시오.

셋째, 모범답안을 작성해 보십시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답안작성 요령에 따라 많은 점수차를 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공부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작성해 보려고 미루었는데 시험이 임박해 옴에 따라 특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결국 무방비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꼭 평상시에 답안을 작성해 보십시오.

넷째, 시험 4일간의 컨디션을 철저히 평상시처럼 유지하십시오. 저의 경우는 이틀간의 시험이 끝난 후 피곤하여 고시원에 돌아온 후 잠시 눈을 붙였는데 깨어난 후 다음날 아침까지 긴장감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의 생체리듬이 깨지자 세번째 날은 비몽사몽간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시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날 경제학 시험이 끝난 후 과락을 예상하여 시험을 포기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 과목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지금도 시험에 열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찾아오길 빌겠습니다.